민주 남구 후보 공천 막판 대혼전

입지자에 대한 최고위원들 입장·평가 엇갈려

"당 기여도 보다 광주발전 견인 후보 가능성"

민주당이 광주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공천 구도가 막판 대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7일까지 남구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확정짓는다는 방침이지만 지도부와 입지자들의 이해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힘에 따라 후보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남구 보궐선거 후보 공천이 지도부와의 친소관계는 물론 차기 전당대회 구도와 연계돼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 후보 선정 이후에도 상당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6일 밤 9시부터 광주 남구 등 7·28 국회의원 재보선 전략공천 문제를 놓고 회의를 진행한다.

하지만 광주 남구의 경우, 입지자들에 대한 최고위원들의 입장과 평가가 엇갈리면서 최종 후보 결정까지는 진통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특히, 10여명에 이르는 입지자들의 역량과 당 기여도, 광주시민 여론 등의 평가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남구 보궐선거 후보 구도는 막판 극심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내부적 전략공천 기준이 '광주시민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을 공천한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당 기여도보다는 광주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입지자의 역량이 우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단순하게 당 기여도나 남구 여론 등을 반영할 경우, 광주시민의 기대와 여론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오히려 무소속 바람을 일으키는 등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광주 남구 보궐선거 후보 선정은 뚜껑을 열어보야 알 수 있을 정도로 막판 극심한 혼전 양상을 빚고 있다"며 "누구를 공천해도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광주시민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역량있는 인물이 최종 후보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남구 보궐선거 후보 공천이 막판 혼전 양상을 보이면서 각 입지자들도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를 상대로 치열한 물밑 공세를 펼치고 있다.

당 지도부 인사들에 대한 전화 공세와 사무실 방문은 물론 지인들을 총동원, 후보 공천을 위한 막판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민주당 내부에서는 공천 내락설이 횡행하는 등 각종 루머가 양산되고 있다.

실제로 모 입지자 측에서는 정세균 대표 등 당 지도부와의 각별한 관계를 내세우며 사실상 공천이 확정됐다는 입장을 나타내는가 하면 또 다른 입지자는 당 기여도 등을 감안, 후보로 내정됐다는 설을 흘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세균 대표 등 지도부와의 친분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입지자의 공천이 현실화되거나 광주시민의 기대치에 어긋나는 후보가 공천될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오늘 저녁 후보를 가닥 짓는다는 방침이지만 쉽게 이뤄질 수 있는지는 미지수"라며 "막판까지 광주시민의 기대에 충족시킬 수 있는 후보 공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운찬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민주당 신건 영포게이트 진상조사특위 위원장 및 위원들로부터 총리실 민간인 사찰에 대한 항의를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 /연합뉴스

"차기 총리는 파격적으로 가야"

靑 '책임 총리제' 도입 시사

정운찬 국무총리가 사퇴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청와대 내부에서 신임 국무총리는 변화를 상징할 수 있는 인사가 기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6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무총리는 변화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쪽으로, 파격적으로 가는 게 좋다고 본다. 그러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통령실장은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변화의 이미지는 총리를 통해 하는 것이 맞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밝히고 "내년부터는 여야관계에서 큰 충돌 없이 정치를 할 수 있는 시기"라며 "대통령은 한발 물러서 있고, 무엇을 새로 추진하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관리하는 차원으로 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대통령이 집권 초기에는 촛불집회 등을 거치면서 그립(장악력)이 셀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며 "대통령이 권력을 나누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언급,'책임총리제' 도입 가능성도 시사했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 시기에 대해서는 "금주 중 청와대 조직개편을 하고 인적개편은 일주일은 더 걸릴 것 같다. 다음 주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끝내고 나서 하는 게 15일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국무총리 교체 및 개각 등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며 "청와대 조직개편과 인사 시기 여부도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동영은 사과하라" "혁신기구 구성 서명"

민주 주류-비주류 감정싸움 비화

민주당 주류가 비주류의 '반(反) 정세균 연대'에 대해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하자 비주류는 혁신기구의 즉각적 구성을 촉구하는 당원 서명운동으로 맞불을 놨다.

특히 주류 측이 비주류 수장의 한 명인 정동영 의원을 정조준하면서 양측의 힘겨루기가 감정싸움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정세균 대표의 최측근으로 주류 측 핵심인 최재성 의원은 6일 기자회견을 자청, "정 의원의 '백의종군'이 이것이냐"며 '당을 뒤엎어야 한다'는 정 의원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또 "정 의원은 네거티브 정치로 일관한 분으로, 참여정부의 황태자였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서슴없이 배신의 화살을 날린 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상주를 자임, 머리를 조아렸다"고 과거 전력을 거론한 뒤 "군사문화가 침투한 게 아닌가 의심할 정도", "오로지 당권만 있을 뿐" 등의 공격적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쇄신연대의 당내 혁신기구 구성 주장에 대해 "국민과 당원 앞에 링을 만들고 난투극을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일축한 뒤 집단지도체제, 당·대권 분리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정동영 천정배 문학진 장세환 의원 등 쇄신연대 핵심인사 10여명은 이날 회의를 열어 혁신기구의 즉각적 구성을 촉구하는 당원 서명운동을 강행키로 했다.

하지만, 8일부터 예정된 권역별 당원대회는 역풍을 우려, 일단 취소했다.

한편, 쇄신연대에 몸을 담고 있는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쇄신연대가) 특정인 지지를 위해 세력화한다면 파벌정치"라면서도 "(주류 측이) 행동하는 욕심으로 당권, 대권을 다 가지려 한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하기 어렵다"고 양비론을 폈다.

또 중도파인 김효석 의원도 전날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직 계파의 이익,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된 모습"이라며 "국민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이기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주류, 비주류 할 것 없이 자기만 이기고 민주당과 국민은 지는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광재지사 '직무정지'

헌법소원 심판 청구

이광재 강원지사는 6일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지사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가회동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이 지사 측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취지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그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는 선거를 통해 형성된 주권자의 의사와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을 너무 가벼이 여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죄가 있는 것처럼 취급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우리 헌법에 명백히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한나라 전대 후보 '기호마케팅' 뜨겁다

5번 이성헌 '오 필승코리아'

6번 정두언 '중심 후보론'

2번 김대식 '이번엔 김대식'

한나라당 7·14 전당대회 주자 13명에 대한 기호 추첨이 완료된 가운데 후보들 사이에 기호 알리기 열전이 벌어지고 있다. 대의원과 일반 국민을 상대로 자신의 기호를 각인시키기 위한 아이디어가 백출하고 있는 것이다. 후보들의 이름조차 기억하기 힘들 정도로 13명이나 되는 후보가 출전하면서 나타난 진풍경이다.

영광 출신의 기호 5번 이성헌 후보는 월드컵을 치르면서 익숙해진 구호 '오~ 필승 코리아'를 활용했다. '오 필승 코리아, 오 필승 한나라, 오 필승 이성헌'이다.

광주 출신의 정두언 후보는 기호 6번을 '중심후보론'으로 연결했고,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원외인 김대식 후보는 '이번에는 2번 김대식, 두 번째 표는 김대식, 투(two)모로우 김대식'이라는 문구로 기호 2번을 알리고 있다.

4선의 남경필 후보는 기호 7번이 13명 중 가운데란 점에서 중립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웠다. '친이 친박도 아닌 가운데 7번, 계파중립 담보할 7번 남경필'이 선전 문구다.

안상수 후보는 기호 13번을 알리는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는 '캡틴' 박지성을 활용했다. 광고 문구는 '맨유의 13번 박지성, 한나라당의 13번 안상수'다.

홍준표 후보는 '화합·쇄신·미래의 3위 일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자신이 이번 전대에 출마하면서 내건 화합과 쇄신, 미래라는 비전을 자신의 기호 3번과 연계시킨 것이다.

또 친 박근혜계인 기호 12번 서병수 후보는 '2012년 정권 재창출을 박근혜와 함께'라는 문구를 내걸었다. 차기 대선이 있는 2012년에서 자신의 기호가 연상되도록 한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